

직업안내를 위한 흥미와 성격의 통합: Strong 흥미검사와 MBTI를 중심으로*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관계가 남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2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518명 (남학생: 207명, 여학생: 311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흥미와 성격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남녀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였으며, 두 검사결과를 통하여 개인에게 어떻게 직업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스트롱 흥미검사, MBTI, 흥미와 성격의 통합

* 이 논문은 2002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02-940-5424, tak@kw.ac.kr

개인에게 직업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성, 흥미, 성격, 및 가치 등의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가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는 나름대로 개인의 직업안내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적성검사는 개인이 어떤 분야나 부분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흥미검사는 개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격과 가치검사도 개인의 성격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Lowman (1991)이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흥미, 능력, 그리고 성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 이래 이러한 심리적 속성을 통합해서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섯 가지 기본 흥미유형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흥미검사의 개발 및 발전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Holland(1985)는 개인의 흥미는 성격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olland는 직업흥미검사는 실제로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직업이 개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성격검사로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적 속성의 통합 중에서도 개인의 흥미와 성격에 관한 통합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Strong의 흥미검사와 MBTI(Myer-Briggs Type Indicator)는 각각 개인의 흥미와 성격을 측정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들로서 흥미와 성격 측정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중의 하나이다. 상담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내담자의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롱

흥미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 SII; 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tkins, Campbell, & Nieberding, 1994). 또한 이 검사는 이미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으며 (Harmon et al, 1994), 전문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Busch, 1995; Worthen, 1995).

MBTI 또한 개인 및 직업 상담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Provost & Anchors, 1988) 여러 조사에 따르면 MBTI는 대학의 직업상담가뿐(Graff, Larimore, Whitehead, & Hopson, 1991) 아니라 전직상담과 경력개발과 같은 조직 상황에서도 (Sample & Hoffman, 1986)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신뢰도 (Capraro & Capraro, 2002; Harvey, 1996; Myers & McCaulley, 1989)와 타당도 (Myers & McCaulley, 1989; Thompson & Borrello, 1986; Tischler, 1994)도 보고된 바 있다.

이 두 검사 모두 개인은 자신의 개인 특성(즉, 흥미나 성격)에 적합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개인-환경 적합성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검사들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 특히, 이 두 검사간의 관계가 남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검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관계가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트롱 흥미검사

스트롱 흥미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는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여 이에 적합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Strong이 1927년에 처음으로 스트롱 직업흥미검사(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SVIB)를 개발한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으며 (Campbell & Hansen, 1981; Hansen & Campbell, 1985),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4년에 이루어졌다 (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 처음 개발시에는 단순히 10개의 직업 척도(Occupational Scales: OS)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여섯 개의 기본 흥미모형(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25개의 기본흥미척도, 211개의 직업척도,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로 구성된 개인특성척도(Personal Style Scales: PSS)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롱 흥미검사의 타당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Hansen & Swanson, 1983; 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 국내에서는 1994년에 수정 개발된 스트롱의 흥미검사(SII)(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가 김정택, 김명준 및 심혜숙 (2001)에 의해 최근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Tak(in press)에 의해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

MBTI 성격검사

이 검사는 개인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유형을 기술해주는 Jung의 성격유형(Jung, 1976)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것이다. Jung의 이론은 네 가지의 기본 정신과정(감각, 직관, 사고, 및 감정)과 두 가지의

주변 세계에 대한 태도(외향 또는 내향)로 구성되어 있다.

Isabel Myers와 그녀의 어머니 Katharine Briggs는 Jung의 이론을 토대로 개인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격과 일간의 관계가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격 검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McCaulley & Martin, 1995).

MBTI(Myers & McCaulley, 1985)는 인간의 행동을 네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차원은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선호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외향형(Extroversion)-내향형(Introversion) (EI), 감각형(Sensing)-직관형(Intuition), 사고형 (Thinking)-감정형 Feeling), 그리고 판단형 (Judging)-지각형(Perceiving)으로 구분된다.

MBTI를 직업선택과 관련시킨 연구를 살펴보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McCaulley (1977)는 외향성 성격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및 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졌고, 내향형 성격은 병리학, 마취학, 그리고 심리치료 분야를 선택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감각형은 마취학, 산부인과, 그리고 부인학을 선택했다. 직관형은 병리학, 신경학, 그리고 심리치료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MBTI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MBTI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McCaulley & Martin, 1995). 또 주의해야 할 점은 MBTI는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경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MBTI는 누가 더 성숙한 성격의 소유자고 누가 부족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검사는 국내에서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와 성격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의 관계

흥미와 성격간의 관계

개인의 흥미와 성격간의 일반적 관계는 여러 차례 연구된 바 있다. 개인의 흥미는 대부분 Holland의 육각형 모델을 토대로 측정하였으며, 개인의 성격은 크게 특성과 유형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표적인 성격 특성 접근 방법은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호감성 및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는 성격의 5요인이고(Goldberg, 1990), 유형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성격검사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Myers & McCaulley, 1985)이다.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Tokar와 Swanson(1995)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예술형은 개방성과, 사회형과 진취형은 외향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Holland, Johnston 및 Asama(1994)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진취형은 정서불안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Carless(1999)는 139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흥미와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남녀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안창규(1999)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예술형은 개방성과, 사회형은 외향성, 진취성과, 그리고 관습형은 개방성 및 성실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건, 김성훈, 허영운(1999)이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남녀별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흥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간의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두 검사의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MBTI 매뉴얼(Myers & McCaulley, 1985)은 MBTI를 스트롱 흥미검사(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SCII)와 같이 사용할 경우, SCII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MBTI는 왜 특정 직업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Pinkney(1983)는 스트롱 흥미검사를 처음에 실시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줄 경우 더 이상의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BTI를 처음에 실시해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Katz, Joyner, 및 Seaman(1999)는 직업 안내를 위해 스트롱 흥미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 SII)와 MBTI를 같이 실시한 후 정보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년제 대학생인 조사대상자들을 MBTI와 SII를 같이 실시한 후 해석해 준 집단(공통집단), MBTI만 실시한 후 해석해 준 집단, SII만 실시한 집단, 그리고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를 해석해 준 뒤 12주 후에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공통집단에서 경력목표, 경력목표의 구체성, 경력목표의 확실성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공통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해석해주는 것이 각 검사를 하나만 실시해서 해석해주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을 성별과 연령(25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또한 각 검사가 직업 선택 및 결정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공통집단의 경우 MBTI집단이나 SII집단에 비해 각 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MBTI는 SII만큼 직업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검사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Dillon과 Weissman(1987)은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MBTI와 스트롱-캠벨흥미검사(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SCII)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흥미유형에서 현장형은 성격유형중 사고형과 감각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현장형 중에서 60%가 사고형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75%가 사고형이었고 60%가 감각형이었다. 흥미유형 가운데 탐구형은 여성인 경우에 한해서 성격유형중에서 사고형 및 직관형과 관련이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인 경우 탐구형 가운데 76%가 사고형이고 62%가 직관형이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단지 10%만이 사고형과 직관형으로 나타났다.

흥미유형에서 예술형은 전체적으로 성격유형중 직관형(남학생: 79%, 여학생: 93%)과 지각형(남학생: 71%, 여학생: 86%)과의 관련이 컸으며, 감정형과는 남학생인 경우에 한해서 깊게 관련되었다(남학생: 64%, 여학생: 7%). 흥미유형중 사회형은 남녀에 상관없이 외향적 성격 유형과 크게 관련되었다(남학생: 58%, 여학생: 66%). 그러나 직관형, 감정형 및 지각형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감정형과는 크게 관련되었으나(92%) 직관형 및 지각형과는 거의 관련되지 않았다(각각 8%). 이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직관형 및 지각형과의 관련성은 높았으나(각기 66%와 58%) 감정형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았다(9%).

흥미유형에서 진취형은 전체적으로 외향적 성격유형과 크게 관련되었다(남학생: 88%, 여학생:

88%). 반면 사고형과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남학생: 19%, 여학생: 62%). 마지막으로 사무형은 남녀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감각형(남학생: 86%, 여학생: 88%)과 판단형(남학생: 86%, 여학생: 88%)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반면 외향적 성격유형과는 남학생의 경우 크게 관련되었으나(71%) 여학생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낮았다(25%).

Dillon과 Weissman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Holland의 여섯 가지 흥미유형이 MBTI 성격유형과 통합되어 사용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이해와 직업탐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흥미유형과 MBTI 성격 유형간의 관계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스트롱 흥미검사의 가장 최근 판인 1994년 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흥미 여섯 유형과 MBTI 성격유형간의 상관계수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검사간의 관계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Hammer와 Kummerow(2001)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은 자료를 토대로 1994년 판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간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외향형 성격은 사회형 및 진취형 흥미와 깊게 관련되었다. 직관형 성격은 예술형 흥미와 감각형 성격은 사무형 흥미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사고형 성격은 현장형 흥미와 감정형 성격은 예술형 및 사회형 흥미와 높게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형 성격은 예술형 흥미와 판단형 성격은 사무형 흥미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검사간의 관계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박경과 강문희(2000)가 169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검사(안창규, 1996)를

사용해서 Holland의 육각형 모형과 MBTI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격유형중 내향성은 Holland의 유형 중 예술형과 진취형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사무형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MBTI의 감각형은 Holland 유형 중 예술형과는 부적으로 사무형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사고형은 대부분의 흥미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는데, 현상형, 탐구형, 및 사무형과는 정적으로, 사회형과 진취형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 자료를 토대로 MBTI 성격유형과 Holland의 육각형 모형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표집이 여학생으로 제한되었으며, 스트롱 흥미검사가 아닌 진로 탐색검사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

RIASEC 여섯 흥미 유형의 평균점수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견된 바 있으며(Fouad, 2002; Hines, 1983; Swanson, 1992; Tang, 2001),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Tak, in press)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육각형 구조모형의 남녀별 비교 연구결과에서도 남녀간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Swanson, 1992; Tang, 2001)에서는 여성의 경우 육각형 모형이 남성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Rounds, Davison, & Dawis, 1979; Rounds & Zevon, 1983; Utz & Korben, 1976)에서는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MBTI의 경우 각 유형별 빈도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향적이고 감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yers & McCaulley, 1985).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좀 더 외향적이고, 지각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4).

흥미와 성격유형간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녀에 따라 두 검사간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9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Carless, 1999) 두 검사유형간의 관계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Schinka, Dye 및 Curtiss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은 개방성과 외향성 성격 요인이 흥미 유형을 구분해주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개방성, 외향성 및 호감성 요인이 흥미유형을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박동건, 김성훈, 허영운(1999)의 연구는 6가지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상관은 남녀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학생 표집에서 남학생의 경우 외향성은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외향성은 현실형과만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성실성도 남학생의 경우 사회형, 관습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진취형과만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불안정성도 남학생의 경우 탐구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어떤 흥미유형과도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흥미유형과 MBTI 성격 유형점수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고,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을 통해 측정된 성격 요인간의 관계가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illon과 Weissman(1987)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간의 관계도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흥미유형과 MBTI 성격 유형간의 관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두 검사 결과를 통합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시내의 2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518명의 학생들이었다.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 실시 후 결과 피드백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 전체 학생 가운데 남학생이 207명이었고, 여학생이 311명이었다.

측정도구

스트롱흥미검사

본 연구에서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1994년에 수정 개발된 스트롱의 흥미검사(SII) (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스트롱 직업흥미검사(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1)를 사용하였다. 1994년에 수정 개발된 스트롱 흥미검사는 모두 3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은 6개의 일반직업척도(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탐구형, 사무형), 25개의 기본흥미척도, 211개의 직업척도, 그리고 4개의 개인특성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17개의 문항을 한글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미국의 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였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스트롱 검사의 제 1부에 해당하는 135개 직업문항의

경우 노동부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 명칭을 참고하여 번안하였다. 또한 교과목에 해당되는 문항의 경우 국내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국내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라틴어'는 '한문'으로, 'English literature'는 '작문'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에서도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거나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활동은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식축구'는 '축구'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한국판 스트롱 직업흥미검사도 모두 3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은 직업, 교과목, 활동(예, 시계수리, 보고서 작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여가활동, 사람 유형, 선호하는 활동(두 가지 활동 중에 더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 개인의 특성 그리고 선호하는 일의 세계 등 모두 여덟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 교과목, 활동, 여가활동 및 사람유형의 문항에 대해서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관심 없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선호하는 활동'과 '선호하는 일의 세계' 문항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두 활동 중에서 왼쪽 활동을 선호하면 "왼쪽", 오른쪽 활동을 선호하면 "오른쪽" 그리고 차이 없으면 "차이가 없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당신의 특성 문항들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리고 결정할 수 없으면 "?"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일 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여섯 개 일반직업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현장형이 .86, 탐구형이 .88, 예술형이 .87, 사회형이 .86, 탐구형이 .88, 그리고 사무형이 .87이었다(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1). 또한 이 검사는 Holland가 주장한 육각형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 in press).

MBTI 성격유형 검사

MBTI검사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이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MBTI는 전체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그리고 판단-지각의 네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별로 두 가지 선호유형이 있기 때문에 네 차원을 조합하면 모두 16가지의 성격유형이 가능하다.

분석

흥미유형과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흥미유형별 점수는 컴퓨터 채점을 통하여 원점수를 T점수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MBTI의 각 차원별 점수도 컴퓨터 채점을 통하여 원점수를 연속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WIN 11.0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결 과

표 1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 스트롱의 여섯 흥미 유형과 MBTI의 네 가지 성격차원 연속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부적상관은 MBTI 성격 차원에서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그리고 판단형의 방향을, 정적상관은 성격 차원에서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그리고 지각형의 방향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라 흥미와 성격 차원간의 상관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흥미유형에서 현장형은 남학생의 경우 어떤 성격유형과도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각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탐구형 흥미유형은 남학생의 경우 사고형 성

표 1. 흥미 유형과 성격차원간의 상관

흥미유형	집단	성격차원			
		EI	SN	TF	JP
현장형	남학생	-.07	-.03	-.07	-.04
	여학생	-.05	.10	-.03	.16**
탐구형	남학생	-.11	.06	-.16*	-.06
	여학생	.00	.05	-.09	.04
예술형	남학생	-.16*	.44**	.21**	.17*
	여학생	-.07	.36**	.14*	.21**
사회형	남학생	-.08	.03	.04	.09
	여학생	-.12*	.04	.32**	.09
진취형	남학생	-.23**	-.12	-.07	.06
	여학생	-.23**	-.14*	.02	.11
사무형	남학생	-.02	-.24**	-.18*	-.06
	여학생	.04	-.19**	-.02	-.12*

* $p < .05$. ** $p < .01$

격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성격유형과도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예술형은 다른 흥미 유형에 비해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예술형은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그리고 지각형의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외향형을 제외하고는 남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관형, 감정형, 및 직관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사회형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는 성격유형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외향형 및 감정형 성격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흥미 유형 중 진취형에서는 외향형 성격유형과의 유의한 관계가 남학생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외향형 및 감각형 성격유형과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무형 흥미유형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감각형과 사고형

표 2. 성격차원을 예측하는 흥미유형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흥미유형	집단	성격차원			
		EI	SN	TF	JP
현장형	남학생	.03	.04	.16	.03
	여학생	.02	.15*	.05	.18*
탐구형	남학생	-.15	.06	-.29**	-.12
	여학생	-.07	-.03	-.19*	-.01
예술형	남학생	-.06	.54**	.30**	.16
	여학생	.03	.39**	.07	.14*
사회형	남학생	.10	-.08	.06	.06
	여학생	-.06	.05	.41**	.04
진취형	남학생	-.32**	-.21**	-.15	.03
	여학생	-.40**	-.22**	-.16*	.19*
사무형	남학생	.17	-.16*	-.05	-.05
	여학생	.32**	-.18*	-.03	-.34**
R2	남학생	.09**	.30**	.12**	.04
	여학생	.11**	.22**	.15**	.12**

주. 위의 숫자는 베타계수를 나타낸 것임.

* $p < .05$. ** $p < .01$

성격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감각형과 판단형 성격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표 2는 여섯 가지 흥미유형이 각 성격차원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흥미유형이 성격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로 각 성격차원을 준거 변인으로 두고 흥미유형을 예언변인으로 둔 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남학생에서 판단-지각(JP)차원을 제외하고는 여섯 흥미 유형은 각 성격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설명량이 가장 많은 것은 남녀 모두 감각-직관(SN)차원이었다(남학생: 30%; 여학생: 22%).

각 차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향-내향(EI)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남녀 모두 여섯 가지 흥미 유형 가운데 진취형이 가장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무형 흥미도 진취형 다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진취형일수록 성격특성상 외향적인 경향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사무형일수록 내향적인 경향이 있었다. 감각-직관(SN)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남녀 모두 예술형 흥미가 가장 유의하였고, 진취형과 사무형도 유의하였다. 즉 예술형일수록 직관적인 성격 특성이 강했고, 진취형이고 사무형일수록 감각적인 성격특성이 강했다. 현장형은 여학생의 경우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형일수록 직관적인 경향이 있었다.

사고-감정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차원에서 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탐구형은 남녀 모두 사고-감정 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탐구형일수록 사고적인 성격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형 흥미는 남학생의 경우 사고-감정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크고 유의하였으나(예술형일수록 감정형 성격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형 흥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 사고-감정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의한 변인이었으나(사회형일수록 감정형 성격특성이 강함) 남학생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진취형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진취형일수록 사고형 성격특성이 강함).

마지막으로 판단-지각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남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어떠한 흥미유형도 판단-지각 성격 차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

학생의 경우 현장형, 예술형, 진취형, 그리고 사무형의 네 가지 흥미유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형, 예술형, 그리고 진취형일수록 지각형 성격특성이 강했으며 사무형을수록 판단형 성격특성이 강했다.

논 의

본 연구는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 성격유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먼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흥미유형과 성격유형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에게 직업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전체적으로 이 두 검사 유형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예술형 흥미는 남녀에 상관없이 직관형, 감정형, 및 지각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특히 남녀 모두 직관형과의 상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진취형 흥미는 성별에 상관없이 외향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사무형 흥미는 감각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두 검사간의 관계에서 남녀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형 흥미에서 발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형 흥미는 감정형과 크게 관련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두 유형간에 관련이 거의 없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외향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현장형 흥미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지각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남학생은 그렇지 못했다. 탐구형 흥미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사고형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관련이 없었다. 사무형 흥미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사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유의하지 못했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판단형 성격과 유의하였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Hammer와 Kummerow(2001)의 연구 결과와 대부분 유사하나 다소간의 차이점도 있었다. Hammer와 Kummerow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예술형 흥미는 직관형, 감정형, 그리고 지각형 성격과 깊게 관련되었다. 진취형 흥미는 외향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사무형 흥미는 감각형 성격과 관련되었다.

다른 점은 먼저 Hammer와 Kummerow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현장형 흥미와 사고형 성격간에는 남녀 모두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높은 관련이 있었던 사회형 흥미와 감정형 성격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형 흥미와 판단형 성격간의 관계도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두 검사간의 관계에 관해 성별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시도한 Dillon과 Weissman (198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역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유사점은 남녀 상관없이 예술형 흥미가 직관형 및 지각형 흥미와 크게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진취형 흥미도 남녀 상관없이 외향형 성격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사무형 흥미도 성별에 관련 없이 감각형 성격과 크게 관련되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구에서 탐구형은 여학생에 한해서 사고형 및 직관형 성격과 크게 관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이

관계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점중의 하나는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형 흥미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감정형과 크게 관련되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롱 흥미검사가 아닌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측정한 흥미유형과 MBTI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경과 강문희(2000)의 국내 연구와 비교해보면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는 직관형, 감정형, 및 지각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Dillon & Weissman, 1987; Hammer & Kummerow, 2001)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박경과 강문희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진취형 흥미도 외향형 성격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그러나 내향형 성격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강한 상관(.32)이 나타난 사회형 흥미와 감정형 성격간의 관계도 이들의 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상관(.08)이 나타났으며(그러나 사고형 성격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형 흥미와 외향형 성격간의 관계도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적 상관(-.13)이 나타났다. 단지 사무형 흥미에서만 유사하게 감각형 성격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두 연구에서 사용된 흥미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가능성은 박경과 강문희의 연구에서는 MBTI에서 네 가지 차원별 점수를 구하지 않고 여덟 가지 유형에 대한 여덟 개의 연속점수를 가지고 상관을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직업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보면, 먼저 개인에게 스트롱 흥미검사와 MBTI를 실시한 후 두 검사간의 관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추세와 유사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관계 추세가 유사하다면, 예를 들어 흥미유형 중에서 예술형 흥미가 강하고 성격유형에서 직관형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흥미와 성격유형이 서로 일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가 쉽게 되며 이렇게 해서 파악한 직업은 개인의 흥미와 성격 차원에서 모두 일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개인에게 실시한 두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관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 추세와 크게 다를 경우, 예를 들면 흥미 유형에서 예술형 흥미가 강하고 성격유형에서 감각형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해당 개인의 경우 흥미와 성격이 그다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흥미뿐 아니라 성격에도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폭 넓은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스트롱 흥미검사의 경우 처음 개발시부터 개인에게 직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흥미 유형에 따라 광범위한 직업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적으로 예술형 흥미와 감각형 성격간의 상관이 낮다 할지라도 예술형 흥미 유형에 속하는 많은 직업 가운데 일부 직업은 감각형 성격과 적합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스트롱 흥미검사를 실시해서 가능한 직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뒤 각 직업별로 개인의 MBTI유형과 관련시켜 탐색해가면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개인에게 직업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두 개 대학의 대학생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을 받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방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MBTI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흥미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어서 흥미유형과 16가지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와 성격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두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직무만족과 경력몰입과 같은 직무태도 변인들을 측정하여 흥미와 성격유형간의 관계가 강한 사람들이 직무태도 변인에서도 높은 점수를 갖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1). Strong 직업흥미검사매뉴얼.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1990). 성격유형검사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4). MBTI 개발과 활용.
- 박경, 강문희 (2000). MBTI 성격유형과 Holland의 직업적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09-125.
- 안창규 (1996).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한국가이던스.
- 탁진국 (2002). 한국판 스트롱흥미검사의 구조분석. 2002년 한국 산업및조직심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3-60.
- Busch, J. C. (1995). Review of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Fourth edition. In J. C. Conoley & J. C. Impara (Eds.), *The twelf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pp. 997-999). Lincoln, NE: The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s.
- Campbell, D. P. (1966).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s manual*.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Campbell, D. P. (1969).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s manual supplement*.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Campbell, D. P. (1972). A merger in vocational interest research: Applying Holland's theory to Strong's dat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53-376.
- Campbell, D. P. (1974). *Manual for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Campbell, D. P. & Borgen, F. H. (1999). Holland's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est invento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86-101.
- Campbell, D. P., Hansen, J. C. (1981). *Manual for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3r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praro, R. M., & Capraro, M. M. (2002). Myers-Briggs Type Indicator score reliability across studies: A meta-analytic reliability generalization

-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2, 590-602.
- Carless, S. A. (1999). Career assessment: Holland's vocational interes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bili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 125-144.
- Dillon, M., & Weissman, S. (1987).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n the Strong-Campbell and Myers-Briggs Instrum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 68-79.
- Fouad, N. A. (2002).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vocational interests: Between-groups differences on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283-289.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raff, R. W., Larrimore, M., Whitehead, G. I., & Hopson, N. W. (1991). *Career counseling practices: A survey of college/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Hammer, A. L., & Kummerow, J. M. (2001). *Strong and MBTI: Career development guide*.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Hansen, J. C., & Campbell, D. P. (1985). *Manual for the SVIB-SII* (4th ed.). Palo Alto, CA: Stanford Univ. Press.
- Hansen, J. C., & Swanson, J. L. (1983). Stability of interest and the predictive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1981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for college maj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194-201.
- Hansen, J. C., & Johansson, C. B. (1972). The application of Holland's vocational model to 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d for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479-493.
- Harmon, L. W., Hansen, J. C., Borgen, F. H., & Hammer, A. L. (1994). *Strong Interest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Harvey, R. J. (1996). Reliability and validity. In A. L. Hammer (Ed.), *MBTI applications: A decade of research 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p. 5-29).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Hines, H. (1983).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A study of its validity with a sample of Black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06), 1901B. (University Microfilms No. 84-19, 502).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Johnston, J. A., & Asama, N. F. (1994). More evide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personality types and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331-340.
- Jung, C. T. (1976). *Psychological ty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z, L., Joyner, J. W., & Seaman, N. (1999). Effects of joint interpretation of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career choice. *Journal of Career*

- Assessment*, 7, 281-297.
- Lowman, R. L. (1991). *The clinical practice of career assessment: Interests, abilities, and personal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Caulley, M. H. (1977). *The Myers longitudinal medical study*.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ype.
- McCaulley, M. H., & Martin, C. R. (1995). Career assessment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19-239.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9).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Pinkney, J. W. (1983).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s an alternative in career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45-50.
- Provost, J. A., & Anchors, S. (1988). *Application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higher educ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unds, J. B., Jr., Davison, M. L., & Dawis, R. V. (1979). The fit between Strong Campbell Interest Inventory General Occupational Themes and Holland's hexagon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 303-315.
- Rounds, J. B., & Zevon, M. A. (1983). Multidimensional scaling research in vo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 303-31.
- Sample, J. A., & Hoffman, J. L. (1986). The MBTI as a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tool.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1, 47-50.
- Schinka, J. A., Dye, D. A., & Curtiss, G. (1997). Correspondence between Five-factor and RIASEC model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355-368.
- Swanson, J. L. (1992).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for Afr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44-157.
- Tak, J. (in press).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 Tang, M. (2001).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365-37.
- Thompson, B., & Borrello, G. M. (1986). Construct validity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 174-195.
- Tokar, D. M., & Swanson, J. L. (1995). Evaluation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89-108.
- Tischler, L. (1994). The MBTI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31, 24-31.
- Utz, P., & Korben, D. (1976).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occupational themes on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31-42.
- Watkins, C. E., Jr., Campbell, C. L., & Nieberding, R. (1994). The practice of vocational assessment by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 115-128.
- Worthern, B. R. (1995). Review of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Fourth edition. In J. C.

Conoley & J. C. Impara (Eds.), *The twelf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pp. 999-1002). Lincoln, NE: The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s

1 차원고접수 : 2003. 5. 27.
수정원고접수 : 2003. 11. 5.
최종게재결정 : 2003. 11. 23.

Integration of Interest and personality for Career Guidance: Based on Strong Interest Inventory and MBTI

Jinkook Tak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Strong Interest Inventory (SII) is related to MBTI, and if the relationships differ based on gender difference to provide more appropriate career guid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518 college students (male: 207, female: 311) across two universities in Seoul.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six interest types were related to MBTI dimensions. Also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separate analyses of male and female samples be desirable.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 and the way to provide clients with information on career guidance based on these results was discussed. Finall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trong Interest Inventory, MBTI, Integration of Interest and Personality